



'제37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 코엑스에서 4박5일 열띤 경연 지역예선 통과한 263개 우수 분임조와 제안왕들 금메달에 도전 ... 신규 자유형식 부문 지원 늘어



▲ 제37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서 화려사를 하고 있는 허경 기술#준원장



국가 품질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37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가 '글로벌 Top 5를 향한 스마트 경제도시 서울'이란 주제로 지난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코엑스(Coex)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올해 대회는 각 지역예선을 통과한 263개 팀 3,000여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이번 행사는 8월 23일부터 개선사례·운영사례·CoP분야·연구사례 등 15개 부문으로 나눠 26일까지 5개 세션에서 동시에 분임조발표가 진행되었고 국가품질망(Q-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생중계되었다. 이번에 수상한 우수분임조는 12월에 열리는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대통령 명의의 금, 은, 동상을 수여받게 된다.

이번 대회는 규모 뿐이 아니라 형식 면에서도 발전된 대회로 평가 받았다. 참관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발표기법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한편 자유형식 부문을 신설하여 분임조활동 형식이 아니라도 소집단활동을 통해 개선활동을 추진하는 기업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올해 시범적으로 분임조 상호 평가제를 실시하여 소속기업의 분임조를 제외한 다른 분임조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더욱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였다.

대회 기간 중에는 대회 홍보관, 출전 분임조 사전전시가 상설 운영되고, 품질명장 등 품질전문가에게 품질자문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품질예상상담실을 운영하여 현장의 품질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했다. 또한 각 지역에서 온 참가자들 중 사전 신청자들에게 서울시티투어를 제공하는 한편 캐리커처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이 밖에 8월 23일에는 시도별 품질경영활동 지원 현황 등 정보교류를 위한 '전국 시·도 품질담당 공무원 협의회'를, 26일에는 전국 산업현장의 우수제안을 선발 시상하는 '제안 경진대회'를 열었다.

한국표준협회 이종업 전무는 "지난 대회보다 전체 출전팀이 대폭 늘었고, 특히 신규 부문인 자유형식 부문에 중소기업에 비롯한 많은 분임조가 출전하여 기업별 특색 있는 자사 고유의 문제해결 프로세스 모델 발굴이 이뤄졌다"고 자랑하였다.

한편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는 올해로 37회째를 맞이한 전국 규모의 경진대회로, 산업계의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함으로써 기업의 품질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1975년 서울에서 시작된 이후 2004년부터 각 시도별로 순회 개최해오고 있다.

화학융합시험원, 국내 최초 러시아 수출 필수인증 GOST-R 수행 수출기업 비용·시간 줄여 대 러시아 수출 확대에 기여 ... 연간 1,400만 달러 자본 해외유출 해소 기대

KTR KTR이 국내기관 최초로 러시아 정부로부터 공인 시험검사 및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러시아 수출에 필수적인 GOST-R 마크를 직접 부여하게 됐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의 시험과 인증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어 대러 수출 확대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러시아 연방기술표준청(ROSSTANDART)은 KTR을 GOST-R 시험 및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2011년 8월 지정서를 수여했다. 이번 러시아 정부 공인기관 지정으로 KTR은 러시아 연방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한 시험 및 인증은 물론, 서류검토, 상담 및 정보제공 등 수출에 필요한 GOST-R 마크 관련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러시아와 관세동맹을 맺고 있는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는 물론, GOST-R과 유사한 인증제도를 갖고 있는 우스베키스탄 등 인접 CIS(독립국가연합)에 대한 수출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KTR이 직접 접수에서 시험·인증서 발급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들은 약 20% 저렴한 비용에 GOST-R 인증을 취득할 수 있을 예정이다. 예를 들어 유무선 통신장비의 경우 5년 인증서권 취득하려면 평균 500만 원~600만 원의 시험인증비용과 5~6개월의 기간이 필요했지만, KTR은 평균 400만 원 및 2~3개



▲ 김인수 KTR 부원장이 Zarnigalkin AV 러시아 연방 기술표준청 부원장으로부터 GOST-R 인증기관 지정서를 전달받고 있다.

월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다. KTR의 시험·인증범위는 전기전자제품, IT기기, 기계류, 부품, 금속기소재, 금속, 플라스틱 등 내러 주요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한 15개 분야이다.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러시아정부 공인 현지 시험인증기관 4곳을 통해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기성 KTR 원장은 "이번 KTR의 GOST-R 시험 및 인증기관 지정으로 국내기업들은 시간, 비용은 물론 언어적 어려움까지 극복할 수 있게 돼 앞으로 러시아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화학융합시험원,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와 MOU 체결 시험검사 비용할인과 기간 단축, 절차 간소화 등 ... 업체와 회원사 지원 위한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KTR KTR은 정부조달제품의 품질 향상과 원활한 조달업무 수행을 위해 7월 26일 사단법인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와 업무협력약정(MOU)을 체결했다.

조기성 KTR 원장과 김인식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회장은 서울 영등포 KTR 본원 국제회의실에서 MOU를 체결하고 협약서를 교환했다. 이번 MOU는 조달청 우수제품 시정을 받고자 하는 업체와 회원사 지원을 위해 효과적이고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뤄졌다. 업무협약에 따라 KTR은 '시험검사 비용할인', '기간단축 및 절차 간소화', '기술정보 자문'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는 정부조달우수제품 지정제도의 건전한 운영 및 조달행성 발전을 위해 설립됐으며 지난 2000년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 관리규정' 고시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조기성 KTR 원장과 김인식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회장이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했다.